

# 손흥민, 유럽무대 통산 100호골 폭발



토트넘의 손흥민이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웨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19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15라운드 사우샘프턴과의 경기에서 득점 후 기뻐하고 있다. 토트넘은 3-1로 승리하며 승점 33으로 순위를 3위까지 끌어올렸고 손흥민은 유럽 진출 후 통산 100호골을 달성했다.

폭 전 손흥민(26·토트넘)이 이렇게 매섭다. 손흥민이 유럽무대 통산 100호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6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웨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우샘프턴과의 2018~2019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15라운드에서 세 번째 골을 터뜨리며 토트넘의 3-1 승리에 기여했다. 최근 4경기에서 2골을 터뜨리는 동안 가벼우면서 활발한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진을 괴롭혔다.

충분한 휴식이 보약이 됐다. 손흥민은 올해 누구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5월 2017~2018시즌을 마치고 곧장 러시아월드컵 체제에 돌입했다. 월드컵 이후 소속팀의 프리시즌 일정을 보낸 손흥민은 2018~2019시즌 초반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표팀 차출로 또 팀을 떠났다. 금메달이라는 값진 성과와 함께 새롭게 출발한 A대표팀에도 합류했

## 올해 러시아WC·AG·A매치 등 '혹사 논란' 충분한 휴식·로테이션 등 컨디션 조절 '보약'

다. 9월과 10월에 열린 A매치 4경기에 출전했다. 월드컵부터 아시안게임, A매치 평가전에 소속팀 일정까지 쉴 틈 없이 지나갔다. 자연스레 혹사 논란이 불거졌다. 손흥민은 "축구선수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몫이다"고 했지만 말미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땀뻑한 일정에 이동거리도 상당했다.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ESPN은 "손흥민이 5월부터 이동한 거리가 지구 둘 바퀴 도는 수준이었다. 5만마일(약 8만km)에 달한다"고 했다. 소속팀에서 초반 주춤했던 원인으로 자연스레 강행군이 꼽혔다. 손흥민이 시즌 첫 골을 터뜨린 건 11월 1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카라바오컵 16강전이다. 2골을 기록했다. 미수감이 골이 늦었다. 그러나 11월 A매치 기간에 휴식을 취하면서 달라졌다. 손흥민이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합류하는 조건으로 대한축구협회와 토트넘이 11월 A매치에는 합류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내년 1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아시안컵 조별리그 1·2차전에도 결정한다. 휴식으로 정상 컨디션을 되찾은 손흥민은 지난달 25일 첼시와의 경기에서 환상적인 골을 터뜨렸다. A매치 휴식기 이후 처음 가진 경기였다. 약 50m를 돌파해 상대 수비수 2명을 따돌리고 기록한 골이었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 터뜨린 첫 골이다. 지난 2일 아스날과의 14라운드에서도 적극적인 공격 가담과 움직임으로 위력을 보였다. 스피드를 통한 역습을 이끌었고,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장면도 나왔다. 그리고 이날 다시 골맛을 보며 되살아난 골 감각을 과시했다. 리그 2호골이자 유럽 통산 100호골이다. 로테이션도 손흥민의 감각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됐다. 리그 경기 사이에 열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고려해 포체티노 감독은 손흥민을 선발과 교체 카드로 적절히 섞어서 활용했다. 리그와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하면서 체력과 컨디션 조절을 고려한 기용이었다. 손흥민은 9일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연속골에 도전한다.



## SK 간판타자 최정 6년 최대 106억원

2005년 입단해 4차례 우승 기여

SK 와이번스의 최정(31)이 다시 한 번 '책꽂'을 터뜨렸다. SK는 5일 FA 최정과 6년 옵션 포함 최대 106억원(계약금 32억원, 연봉 68억원, 옵션 6억원)에 FA 계약을 체결했다. SK는 최정이 팀의 간판선수로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팀의 4차례 우승에도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SK에서 선수생활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고자 하는 뜻을 전 달했고, 최정도 이런 취지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2015년 4년 총액 86억원 계약을 맺은 최정은 다시 한 번 100억원대의 계약을 이끌어냈다. 최정은 2006년 1차지명으로 SK에 입단해 통산 타율 0.290, 1493안타 306홈런 985타점 926득점 135도루를 기록했다. 13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하며 한국야구를 대표하는 거포로 자리 잡았다. 또 2011~2013년, 2017~2018년 5차례 골든글러브(3루수)를 수상하고 2009, 2013년 월드베이스볼 클래

식(WBC), 2010년 광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고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표로 선발되는 등 대한민국 대표 3루수로 인정 받고 있다. 계약을 마친 최정은 "신인선수로 SK에 입단해 같이 생활해온 SK 선수들이 가족 같이 느껴지고 홈구장인 인천SK행복드림구장은 내 집처럼 편안하고 소중하게 느껴진다. 이곳에서 선수 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구단과 성원해주신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SK가 '제2왕조' 시대를 맞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염경엽 감독은 "최정은 팀에게도 팬들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선수다. FA 계약을 통해 다시 우리팀에 남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최정의 잔류는 팀 타격과 수비에서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베테랑으로서 팀을 이끌고 후배를 이끄는 역할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 '145km 회복' 박지훈 "아프지 않다, 내년 무조건 1군"

"연투도 가능...자신감 생겨" "무조건 1군에 올라간다." 모처럼 드러난 자신감이었다. KIA 우완투수 박지훈이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에 참가해 재기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오랜 팔꿈치 재활을 마치고 재기의 희망을 찾는 얼굴이었다. 박지훈은 2012년 1라운드 지명(전체 4위)을 받은 유망주였다. 입단과 동시에 불펜의 필승조로 활약을 했다. 50경기에 뛰면서 3승2세이브10홀드, 평균자책점 3.38을 기록했다. 타자 앞에서 푹 떨어지는 포크와 슬라이더가 좋았다. 그러나 팔꿈치 통증이 찾아와 2013시즌은 35경기에 출전했다.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을 받았고 군복무까지 더해지며 3년을 쉬었다. 2017시즌 스프링캠프에

서 좋은 불을 던졌으나 다시 팔꿈치 통증이 찾아와 18경기에 그쳤다. 2018년은 아예 개점휴업을 했다. 역시 팔이 문제였다. 잊혀진 선수가 되어갔다. 올해 고통의 시간은 계속됐지만 대신 실마리를 찾았다. 던지는 팔의 각도를 바꾼 것이다. 높이를 낮추면서 백스윙도 무리가 생기지 않았다. "몇 년동안 계속 부상이 있었다. 열심히 재활을 했다. 재활군에서 아프지 않을 것을 찾아보니 지금의 팔 각도가 부담이 되지 않았다. 꾸준히 불을 던져왔는데 스피드도 나왔고 괜찮았다. 그러나 아직은 연습량이 많이 없다. 상대 팀과 경기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청백전에서 최고 구속은 시속 145km까지 찍었다. 이어 대외

실전이었던 삼성과의 연습경기에서는 142km까지 나왔다. 마무리 캠프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무적인 구속이다. "이번 마무리 캠프에서 합류가 조금 늦었지만 목표를 했던 것을 가져갈 수 있다. 일정한 폼을 찾고 각도를 바꾸었으니 투구 밸런스로 새로 만들어야 했다. 건강하게 던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연투도 가능했다.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하며 밝은 표정을 지었다. 박지훈의 목표는 1군. 그는 "체중은 신인때와 비슷하다. 지금이 딱 좋다"면서 "내년 시즌은 무조건 1군에 올라가겠다. 그것이 첫 번째 목표이다. 1군에 올라가야 무엇을 할 수 있다. 아프지 않고 불펜에서 홀드를 챙겨주고 싶다고 말했다.



## SK, 이재원도 잡았다...4년 총액 69억원

"가치 인정해준 구단에 감사"

SK 와이번스(대표이사 류준열)는 5일 자유계약선수(FA) 이재원(30)과 4년 계약금 21억원, 연봉 48억원으로 총액 69억원에 FA 계약을 체결했다. SK는 이재원이 인천 출신으로서 인천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고 팬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과 올해 한국시리즈 우승에도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앞으로의 '제2왕조' 시대를 함께 하자는 뜻을 여러 차례 전달했고, 5일 오후 최종 포수로 큰 주먹을 받았고 2006년 1차지명으로 SK에 입단해 13년간 968경기에 출전 통산 타율 0.297에 87홈런 456타점 322득점을 기록하며 꾸준한 모습을 보여왔다.

또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과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모두 금메달을 획득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포수 중의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재원은 "신인으로 입단해 13년간 뛰었던 SK에서 계속 고향 팬들의 환호를 받으며 뛸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히고 "내 가치를 인정해 준 구단과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팬들에게 감사드리고 내년 SK가 통합 우승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 숲이 있는

#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신정,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년 구례군은 지리산은천, 칠성미골, 화연사, 설진강, 운조루, 패야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물어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